

가축 검정사업이 오리산업 발전에 주는 시사점



▣ 김 정 주 교수
건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

2007년 한국 축산물 생산액 11조 3천억원 중 오리산업 생산액은 5,824억원으로 5.2%를 점했고, 닭 생산액 10,275억원의 56.7%에 달했다. 농림업 생산액 기준 오리 품목은 배추, 벼짚, 토마토, 감에 이어 15위를 차지하였고, 가축 생산액 기준 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에 이어 이어 6대 축종으로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급부상하였다. 사육 농가 수는 2000년에는 12,673호이던 것이 2007년에는 7,183호로 43.3% 감소하였으나 오리 상시 사육수수는 2000년에



5,133천수이던 것이 2007년에는 10,513천수로 2배 가 넘게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호당 평균 상시 사육수수는 405수에서 1,463수로 커져 규모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만수 이상 사육농가 수는 2000년에는 183농가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516농가로 늘어났고 이들 대규모 농가들이 사육한 오리수수는 전체 사육마리수의 8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라 종오리와 그 종오리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오리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리협회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종오리 검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종오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사지탄이 없지 않으나 매우 잘한 일이다.

종오리 검정은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일반검정은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종오리 검사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수입 종오리의 경우 종오리 보증서를, 수입 종오리 후대의 경우는 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 확인서에 대한 심사로 대체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종오리는 종오리 검사를 거치는데 여기에서는 종오리의 특징과 마리수를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18개월(78주령)까지 이다. 또한, 능력검정은 종오리 검정과 경제능력검정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능력검정은 종오리 농장 전체 사육수수를 대상으로 육추율, 육성율, 성오리 생존율, 9주령 체중, 22주령 체중, 70주령 체중, 첫산란일령, 70주령 산란수, 질병 조사 등을 실시한다. 경제능력검정은 육용종 실용오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만수 이상 사육농가 중 사육규모에 따라 무작위로 1% 이상을 추출해 병아리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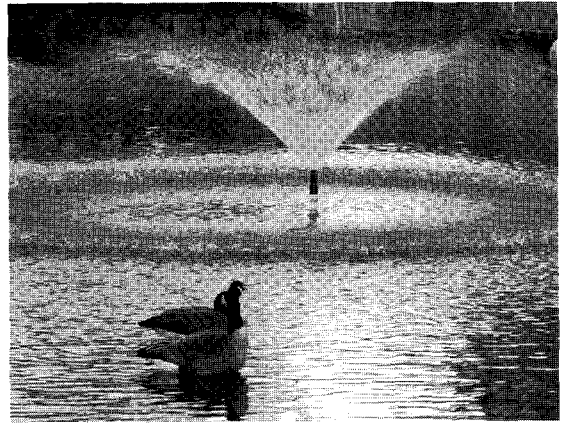
종오리 검정사업이 이제 시작한 단계이므로 다른 가축이나 작물의 종축 및 종자산업의 사례를 보고 오리산업

의 검정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정함이 우선일 것이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춘궁기를 넘기면서 아무리 굶주려도 씨나락까지 먹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예답게 우리가 힘써 할 일이라면 종자(종축)를 잘 관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한우의 예를 보자. 한우를 사육할 때 적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종축개량임이 밝혀진지 오래다. 1980년 한우(비거세 기준) 18개월령의 평균 몸무게는 331.4kg이던 것이 2007년엔 566.6kg으로 1.7배가 늘어났다. 한우 몸집이 매년 평균 8.7kg씩 불어난 셈이다. 한우 육질면에서도 우리나라에 한우 등급판정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3년 당시 육질 1등급 이상을 판정받은 것은 전체의 10.1%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50.9%로 점점 높아졌다. 한우 육질이 이처럼 개선된 것은 개량사업을 통해 우수한 형질을 가진 밀소가 대량 생산되었고, 비육농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고급육 생산에 전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개량이 잘 된 한우는 육질 등급이 높고 우수한 지육률까지 보여 한우 한 마리의 경락값이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낙농의 경우를 보자. 검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낙농가의 연평균 산유량은 7,624kg에 불과하지만 검정농가의 산유량은 이보다 높은 9,598kg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작물의 종자 산업을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벼와 무·배추·고추 등의 육종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이들 몇몇 품목을 빼면, 국내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대부분 다국적기업에 넘어가면서 소위 돈 되는 인기 품종에만 매달리는 탓에 종자 개발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더구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우수한 농촌진흥청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벼 육종과 과수 등에는 큰 성과를 올렸지만, 다른 품목은 실용성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생산성 증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오리업계도 다른 축종의 사례를 본받아 협회를 중심으로 검정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방향을 제시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개량조직은 검정사업의 내실화 등 조직적인 사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 차원의 끊임없는 관심이다. 종축개량산업은 품종개발에 장구한 시일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확실한 품종보호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기본이고 연구·개발·보급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종오리 전량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오리 산업 입장에서는 검정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종축분야 연구와 시장개척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해 적은 돈으로도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품종 육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종자(종축) 강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 종자업계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을 바탕으로 가일층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진력한다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종오리 산업은 전세를 바꾸어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